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은 새 과정, 새 학교, 새 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파송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 이번 목요일(8월23일) 저녁 8시 교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학생부 수련회:
  - 8/26/27/28 (주일-화)
  - America's Keswick (Whiting, NJ)
  - \$110/ person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8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신미라 권사 (시편 84)

이번 주 친교: 김민아 집사, 황인선 사모

다음 주 친교: 홍영순 집사, 신미라 권사

제18권 33호

2018년 8월 19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주일에배**

-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 찬송(Hymn) ----- 80장 (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함께
- 대표기도(Invocation) ----- 시(Psalm) 111 ----- 송은주 집사
- 찬양(Choir) ----- 복의 근원 강림하사 ----- 세광 찬양대
-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빌(Philippians) 3:7-14** -----인도자
-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 설교(Sermon)----- **“Press Forward in Christ”** ----- Edwin Kim 전도사
- \* 찬송(Hymn) -----488장 (통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함께
-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바울의 이차 선교여행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교회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바뀐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일차 여행 때 전도하고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돌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은 지금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몇 사람의 기도로부터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차 여행은 또한 처음부터 여러 장애물과 막다른 골목에 만난 길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소중한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전도 유망한 젊은 사역자 마가를 잃었습니다. 가려고 하던 아시아로 못하고, 그나마 발길을 돌린 비시디아로도 가지 못하고 남북으로 쫓기다 드로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갔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동역자 삼아 함께 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정하신 길,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해주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청빙했으며, 일차 선교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실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평대신 님이 아니었습니다. 실라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의 캄캄한 감옥에서 아름다운 이중창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예배자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함께 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를 잃은 것 같았지만, 영적인 아들이며 바울의 말년에 소망이요 위로가 되었던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비서요 기록관이며 주치의가 되어 바울의 말년을 지킨 누가를 만났습니다(16:10 “우리). 빌립보에서는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참여한” 파트너 루디아를 만났고, 고린도에서는 직업이 같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도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잠시 헤어졌던 마가도 바울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회복되었습니다. (딤후 4:9-11 참조).

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남북으로 막혔을 때, 성령의 막으시는 손길을 거역하고 억지로 가지는 않았지만 갈 수 있는 곳으로 멈추지 않고 갔습니다. 가다보니 드로아에 다라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러저리 쫓겨서 도달한 땅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응답을 알아본 것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작 응답하셔도 확신이 없습니다. 응답인지 우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지 않는 사람은 응답하셔도 갈 수 없습니다. 이미 무릎이 어그러져서 갈 힘이 없습니다. 바울은 당장 눈 앞에 길이 막힐 때 자기 욕심으로 억지로 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주저않지 않고 주어진 길로 갔습니다. 그의 발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향했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렀습니다.

하나님께는 때로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령에, 그의 인생 가운데, 주변의 상황 가운데, 아니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때입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주어진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이 이뤄집니다. 돌아가는 길, 막다른 길을 만날 때,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땀땀 돌리는 넓은 길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다를 데 없는 허망한 길입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의 길을 성령께서 막으신 게, 예수의 영이 못가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아본 것이 은혜입니다. 막으시는 것도 모르고, 아니 자기 욕심 때문에 무시하고 가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자기 욕심에 취해, 일이 잘 풀린다고 속아서 가는 길이 화가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로울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만할 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갑시다.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물읍시다. 약속이 더디 이뤄지고 길이 자꾸 막힐 때, 오히려 그 자리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읍시다. 그렇다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뵈오리라는 우리의 찬송이 우리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